

< 침묵> _ (1926)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걸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시집 < 침묵> (회동서관, 1926)

<군말> ()

님만 님이 아니라 괴륜(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중생(衆生)이 석가(釋迦)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마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拘束)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별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해매는 어린 양(羊)을 괴루어서(그리워서) 이 시를 쓴다.

<독자에게> (跋文)

독자여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것을 부끄러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에 나를 슬퍼하고 스스로 슬퍼할 줄을 압니다.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때에는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는 엮어잡니다.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

(韓龍雲) (Link)

(崔南善)

朝鮮獨立理由書(韓龍雲)

朝鮮革命宣言(申采浩)

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民衆의 誠忠을 습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的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并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 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며 全人類 共存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의 遺物인 侵略主義 強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生存權의 剝喪됨이 무릇 幾何|며 心靈上 發展의 障礙됨이 무릇 幾何|며 民族的 尊榮의 毀損됨이 무릇 幾何|며 新銳와 獨創으로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 補裨할 奇緣을 遺失함인 무릇 幾何|노

噫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 하면 時下의 苦痛을 擺脫하려 하면 將來의 脅威를 芟除하려 하면 民族的良心과 國家의 廉義의 壓縮 銷殘을 興奮 伸張하려 하면 各個人格의 正當한 發達을 遂하려 하면 可憐한 子弟에게 苦

을遺與치안이 하려하면子子孫孫의永久完全한慶福을導迎하려하면最大急務가民族的獨立을
確實케 함이니二千萬各個가人마다方寸의刃을懷하고人類通性和時代良心이正義의軍과人道의干戈로
써護援하는今日吾人은進하야取하매何強을挫치 못하랴退하야作하매何志를展치 못하랴

丙子修好條規以來時時種種의金石盟約을食하얏다하야日本의無信을罪하려안이 하노라學者는講壇
에서政治家는實際에서我祖宗世業을植民地視하고我文化民族을土昧人遇하야한갓征服者의快를貪할
뿐이오我的久遠한社會基礎와卓犖한民族心理를無視한다하야日本의少義함을責하려안이 하노라自己
를策勵하기에急한吾人은他の怨尤를暇치 못하노라現在를綢繆하기에急한吾人은宿昔의懲辯을暇치 못
하노라今日吾人의所任은다만自己의建設이有할뿐이오決코他の破壞에在치안이 하도다嚴肅한良心의
命令으로써自家의新運命을開拓함이오決코舊怨과一時的感情으로써他를嫉逐排斥함이안이로다舊思
想舊勢力에羈縻된日本爲政家の功名的犧牲이된不自然又不合理한錯誤狀態를改善匡正하야自然又合
理한政經大原으로歸還케 함이로다當初에民族的要求로서出치안이 한兩國併合의結果가畢竟姑息的威
壓과差別的不平과統計數字上虛飾의下에서利害相反한兩民族間에 永遠히和同할수업는怨溝를去益
深造하는今來實積을觀하랴勇明果敢으로써舊誤를廓正하고眞正한理解와同情에基本한友好的新局面
을打開함이彼此間遠禍召福하는捷徑임을明知할것안인가또二千萬含憤蓄怨의民을威力으로써拘束함
은다만東洋의永久한平和를保障하는所以가안일뿐안이라此로因하야東洋安危의主軸인四億萬支那人
의日本에對한危懼와猜疑를갈수록濃厚케 하야그結果로東洋全局이共倒同亡의悲運을招致할것이明하

今日吾人の朝鮮獨立은朝鮮人으로서야金正當한生榮을遂케 하는同時에日本으로서야금邪路로서出
하야東洋支持者인重責을全케 하는것이며支那로하야금夢寐에도 하지 못하는不安恐怖로서脫出케 하
는것이며또東洋平和로重要한一部를삼는世界平和人類幸福에必要한階段이되게 하는것이라이엇지區
區한感情上問題이리오

아아新天地가眼前에展開되도다威力의時代가去하고道義의時代가來하도다過去全世紀에鍊磨長養
된人道的精神이바야흐로新文明의曙光을人類의歷史에投射하기始하도다新春이世界에來하야萬物의
回蘇를催促하는도다凍氷寒雪에呼吸을閉蟄한것이彼一時의勢이라하면和風暖陽에氣脈을振舒함은此
一時의勢이니天地의復運에際하고世界の變潮를乘한吾人은아모躑躅할것업스며아모忌憚할것업도다
我의固有한自由權을護全하야生旺의樂을飽享할것이며我의自足한獨創力を發揮하야春滿한大界에民
族의精華를結紐할지로다

吾等이茲에奪起하도다良心이我와同存하며眞理가我와并進하는도다男女老少업시陰鬱한古巢로서
活潑히起來하야萬彙羣象으로더부러欣快한復活을成遂하게되도다千百世祖靈이吾等を陰佑하며全世
界氣運이吾等を外護하나니着手가곳成功이라다만前頭의光明으로驀進할싸름인더

公約三章

一、今日吾人の此舉는正義、人道、生存、尊榮을爲하는民族的要求이니오즉自由의精神을發揮할것
이오決코排他的感情으로逸走하지말라

、最後의一人까지最後의一刻까지民族의正當한意思를快히發表하라

一、一切의行動은가장秩序를尊重하여吾人의主張과態度로하여금어대까지던지光明正大하게하라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一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鎭	權秉惠	羅龍煥
羅仁協	梁旬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其兆		

[朝鮮獨立에 對한 感想의 概要]

. 概 論

二. 朝鮮獨立宣言의 動機

- (1) 朝鮮民族의 實力
- (2) 世界大勢의 變遷
- (3) 民族自決條件

三. 朝鮮獨立宣言의 理由

- (1) 民族自存性
- (2) 祖國思想
- (3) 自由主義
- (4) 對世界의 義務

四. 朝鮮 總督政策에 對하여

五. 朝鮮獨立의 自信

. 概論

는 萬有의 生命이요 平和는 人生의 幸福이라, 故로 自由가 無한 人은 死骸와 同하고 平和가 無한 者는 最苦痛의 者라 壓迫을 被하는 者의 周圍의 空氣는 墳墓로 化하고 爭奪을 事하는 者의 境涯는 地獄이 되느니 宇宙의 理想的 最幸福의 實在는 自由와 平和라. 故로 自由를 得하기 爲하여는 生命을 鴻毛視하고 平和를 保하기 爲하여는 犧牲을 甘飴嘗하느니 此는 人生의 權利인 同時에 또한 義務일지로다. 그러나 自由의 公例는 人의 自由를 侵치 아니함으로 界限을 삼느니 侵掠的 自由는 沒平和의 野蠻 自由가 되며 平和의 精神은 平等에 在하니 平等은 自由의 相敵을 謂함이라. 故로 威壓的 平和는 屈辱이 될 뿐이니 眞自由는 반드시 平和를 保하고 眞平和는 반드시 自由를 伴할지라.

自由여 平和여 全人類의 要求일지로다. 그러나 人類의 智識은 漸進的이므로 草昧로부터 文明에, 爭奪로부터 平和에 至함은 歷史的 事實에 證明하기 足하도다. 人類 進化의 範圍는 個人的 으로부터 家族, 家族的 으로부터 部落, 部落的 으로부터 國家, 國家的 으로부터 世界, 世界的 으로부터 宇宙主義에 至하도록 順次로 進歩함이니 部落主義 以上은 草昧時代의 落謝塵에 屬한지라

의 感懷를 資하는 外에 論述할 必要가 無하도다. 幸인지 不幸인지 十八世紀 以後의 國家主義는 實로 全世界를 風靡하여 騰奔의 絶頂에 帝國主義와 其實行의 手段 卽 軍國主義를 產出함에 至하여 所謂 優勝劣敗, 弱肉強食의 學說은 最眞不變의 金科玉條로 認識되어 殺伐強奪 國家或 民族的 戰爭은 자못 止息될 日이 無하여 或幾千年의 歷史國을 丘墟하며 幾十百萬의 生命을 犧牲하는 事가 地球를 環하여 無한 處가 無하니 全世界를 代表할 만한 軍國主義는 西洋에 獨逸이 有하고 東洋에 日本이 有하였도다.

그러나 所謂 强者 卽 侵掠國은 軍艦과 鐵砲만 多하면 自國의 野心壑欲을 充하기 爲하여 不人道 蔑正義의 爭奪을 行하면서도 그 理由를 說明함에는 世界 或 局部의 平和를 爲한다든지 爭奪의 目的物 卽 被侵掠者의 幸福을 爲한다든지 하는 等 自欺欺人의 妄語를 弄하여 儼然히 正義의 天使國으로 自居하느니 例하면 日本이 暴力으로 朝鮮을 合併하고 二千萬 民族을 奴隸待하면서 朝鮮을 合併함은 東洋平和를 爲함이며, 朝鮮民族의 安寧 幸福을 爲함이라 云云함이 是라.

嗚呼라 弱者는 從古의 弱者가 無하고 强者는 不盡의 强者가 無하니 曝寒의 大運이 其輪을 轉하는 時는 復讐的 戰爭은 반드시 侵掠的 戰爭의 踵을 ○하여 起할지니 侵掠은 戰爭을 誘致하는 事라 어찌 平和를 爲하는 侵掠이 有하며 또한 어찌 自國幾千年의 歷史는 他國侵掠의 劍에 斷絶되고 幾百千萬의 民族은 外人의 虐待下에 奴隸가 되고 牛馬가 되면서 此를 幸福으로 認할 者가

하리오. 何民族을 莫論하고 文明程度의 差異는 有할지나 血性이 無한 民族은 無하니 血性을 具한 民族이 어찌 永久히 人의 奴隸를 甘作하여 獨立自存을 圖치 아니하리오. 故로 軍國主義 卽 侵掠的主義는 人類의 幸福을 犧牲하는 最魔術일 뿐이니 어찌 是와 如한 軍國主義가 天壤無窮의 運命을 保하리오. 理論보다 事實, 嗚呼라 '劍'이 어찌 萬能이며 '力'이 어찌 勝利리오.

正義가 有하고 人道가 有하도다. 侵掠又侵掠 惡極慘極의 軍國主義는 獨逸로써 最終幕을 演치 아니하였는가? 血耶肉耶 鬼哭神愁의 歐洲 大戰爭은 大略 一千萬의 死傷者를 出하고 幾多億의 金錢을 〇費한 後에 正義人道를 標榜하는 旗幟下에서 講和條約을 成立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軍國主義의 終極도 實로 色彩를 莊嚴함에 遺憾이 無하였도다. 全世界를 蹂躪하려는 海欲을 充하기 爲하여 苦心焦思 三十年의 準備로 幾百萬의 健兒를 數百〇의 戰線에 立하고 鐵騎飛船을 鞭馳하여 左衝右突 東聲西擊 開戰 三個月 內에 巴里를 陷落한다고 自期하던 카이제르의 聲言은 一時의 壯絶을 極하였도다. 그러나 그것도 軍國主義的 訣別의 終曲일 뿐이며, 理想과 聲言 뿐 아니라 作戰計劃의 事實도 卓越하여 休戰을 開議하던 日까지 聯合國側 兵馬의 足跡은 獨逸國境의 一步地를 踰越치 못하였으니 航空機는 空에서 潛航艇은 海에서 自動砲는 陸에서 各各 其妙를 極하여 實戰의 作略에 絢爛한 色彩를 發하였도다. 그러나 그것도 軍國主義的 落照의 反射일 뿐이다. 噫, 一億萬 人民의 上에 君臨하고 世界 一括의 雄圖를 自期하여 對世界에 宣戰을 布告하고 百戰百勝의 概를 有하여 神耶人耶의 間에서 縱橫自在하던 獨逸皇帝가 一朝에 自己生命의

으로 認하는 '劍'을 解하고 ○涼落拓, 天涯淪落의 知蘭 遐○에 殘喘을 僅保함은 何等의 突變이나? 此는 곧 카이제르의 失敗 뿐 아니라 軍國主義의 失敗니 一世의 快事를 感하는 同時에 其人을 爲하여는 一線의 同情을 禁치 못하리로다. 그러나 聯合國側도 獨逸의 軍國主義를 打破한다고 聲言하였으나 其 手段 方法의 實用은 亦是 軍國主義의 遺物인 軍艦 鐵砲 等の 殺人具인즉 是는 蠻夷로 蠻夷를 攻함이니 何의 別이 有하리요. 獨逸의 失敗가 聯合國의 戰勝이 아닌즉 數多한 強弱國의 合致한 兵力으로 五年間의 持久戰에 獨逸을 制勝치 못함은 此는 또한 聯合國側 準軍國主義의 失敗가 아닌가. 그러면 聯合國側의 砲가 強함이 아니요, 獨逸의 劍이 短함이 아니거늘 戰爭의 終極을 告함은 何故뇨? 正義 人道의 勝利요 軍國主義의 失敗니라. 然하면 正義 人道 卽 平和의 神은 聯合國의 手를 借하여 獨逸의 軍國主義를 打破함인가. 曰 否라.

正義 人道 卽 平和의 神은 獨逸人民의 手를 假하여 世界의 軍國主義를 打破함이니 곧 戰爭中의 獨逸革命이 是라. 獨逸革命은 社會黨의 手에서 起하였은즉 其 由來가 久하고 또한 露國革命의 刺戟을 受한 바 有하나 統括적으로 말하면 戰爭의 苦를 感하여 軍國主義의 非를 痛切히 覺悟한 故로 談笑容從의 間에서 戰爭을 自破하고 怒濤驚浪의 軍國主義를 發揮하려던 劍을 倒하여 軍國主義의 自殺을 遂하고 共和革命의 成功을 博하여 平和의 新運命을 開拓함인즉 聯合國은 其 隙을 乘하여 漁父의 利를 得함이라. 今番 戰爭의 終極에 對하여는 聯合國의 勝利 뿐 아니라 또한 獨逸의 勝利라 하리로다.

오? 今般戰爭에 獨逸이 孤注一擲의 最後 一戰을 決할지라도 勝負를 可히 知치 못할지요. 假使 獨逸이 一時의 勝利를 得한다 할지라도 聯合國의 復讐戰爭이 一起再起하여 獨逸의 滅亡을 見치 아니하면 兵을 解할 日이 無할지라. 故로 獨逸이 戰敗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戰勝이라고 할 만한 境遇에 在하여 斷然히 屈辱的 休戰條約을 承諾하고 講和를 請함은 곧 機를 見하여 勝을 制함이니 講和會議에 對하여도 可及의 屈辱的 條約에는 無條件으로 承諾함을 推知하기 不難 하도다 (三月 一日 以後의 外界消息은 不知). 그러하면 現今主義로 見하면 獨逸의 失敗라 할지 나 遠視的으로 見하면 獨逸의 勝利라 하리로다.

噫라 曠古 未曾有의 歐洲戰爭과 奇怪 不思議의 獨逸의 革命은 十九世紀 以前의 軍國主義 侵掠 主義의 餞別會가 되는 同時에 二十世紀 以後의 正義 人道的 平和主義의 開幕이 되어 카이제르 의 失敗가 軍國主義的 各國의 頭上에 痛棒을 下하고 威日遜의 講和基礎 條件이 各領土의 古查 에 春風을 傳하매 侵掠國의 壓迫下에서 呻吟하던 民族은 騰空의 氣와 決河의 勢로 獨立自決을 爲하여 奮鬪하게 되었으니 波蘭의 獨立이 是며 체코의 獨立이 是며 愛蘭의 獨立宣言이 是며 印 度의 獨立運動이 是며 比律賓의 獨立經營이 是며 朝鮮의 獨立宣言이 是라 (三月 一日까지의 狀 態). 各民族의 獨立 自決은 自存性의 本能이며 世界의 大勢며 神明의 贊同이며 全人類의 未來 幸運의 源泉이라. 誰가 此를 制하며 誰가 此를 防하리오.

日本이 우리의 國號를 없애며 우리의 政權을 빼앗으며, 우리 生存에 必要한 條件을 다 박탈하였다. 經濟의 생명인 山林, 川澤, 鐵道, 鑛山, 漁場……乃至 小工業 原料까지 다 빼앗아 一切의 生産機能을 칼로 베이며 도끼로 끊고, 土地稅, 家屋稅, 人口稅, 家畜稅, 百一稅, 地方稅, 酒草稅, 肥料稅, 種子稅, 營業稅, 清潔稅, 所得稅……其他 各種 雜稅가 逐日 增加하여 血液은 있는 대로 다 빨아 가고, 如干 商業家들은 일본의 製造品을 朝鮮人에게 媒介하는 中間人이 되어 차차 資本集中의 原則下에서 滅亡할 뿐이요, 大多數 人民, 곧 一般農民들은 피땀을 흘리어 土地를 갈아, 그 終年 所得으로 一身과 妻子의 糊口거리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日本 強盜에게 進供하여 그 살을 찌워 주는 永世의 牛馬가 될 뿐이요, 終乃에는 牛馬의 生活도 못하게 日本 移民의 收入이 年年 高度의 速率로 增加하여 ‘딸각발이’ 등쌀에, 우리 民族은 발 디딜 땅이 없어 山으로 물로 西間島로 北間島로 西比利亞의 荒野로 몰리어 가 餓鬼부터 流鬼가 될 뿐이
며,

일본이 憲兵政治, 警察政治를 힘써 행하여 민족이 한 발자국의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言論·出版·結社·集會의 일체 자유가 없어 고통과 울분과 怨恨이 있어도 병어리의 가슴이나 만질 뿐이요, 幸福과 자유의 세계에는 눈 뜬 소경이 되고, 자녀가 나면 “일본어를 國語라, 일본 글을 國文이라” 하는 奴隸 養成所—學校로 보내고, 朝鮮 사람으로 或 朝鮮史를 읽게 된다 하면 檀君을 속여 “素盞鳴尊의 형제” 라 하며, “三韓時代 漢江以南을 日本의 땅” 이라고 일본놈들이 적은 대로 읽게 되며, 新聞이나 雜誌를 본다 하면 強盜政治를 讚美하는 半日本化한 奴隸的 文字뿐이며, 똑똑한 자제가 난다 하면 환경의 壓迫에서 세상을 悲觀하고 절망하는 墮落者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陰謀 事件’ 이라는 이름으로 監獄에 갇혀 주리 틀기,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쇠사슬 채우기, 단근질, 채찍질, 전기질, 바늘로 손톱 밑과 발톱 밑을 쑤시는, 手足을 달아매는, 콧구멍에 물 붓는, 생식기에 심지를 박는 모든 惡刑, 곧 야만 專制國의 刑律辭典에도 없는 갖은 惡刑을 다 당하고 죽거나, 요행히 살아 獄門에서 나온대야 평생 不具者가 될 뿐이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發明 創作의 本能은 生活의 困難 때문에 단절되며, 進取 활발의 氣像은 環境의 압박 때문에 消滅되어 ‘찍도 찍도’ 못하게 각 方面의 속박, 채찍질, 驅迫, 압제를 받아 바다로 둘러싸인 삼천리가 한 개의 큰 監獄이 되어, 우리 民族은 아주 인류로서의 自覺을 잃을 뿐 아니라, 곧 자동적인 本能까지 잃어 노예로부터 기계가 되어 강도 손아귀 안의 사용품이 되고 말 뿐이며,

日本이 우리의 生命을 초개같이 보아, 乙巳 이후 13道에 義兵이 일어나던 各地方에서 일본 군대가 행한 暴行은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최근에는 3·1運動 以後 水原·宣川 등의 國內 各地부터 北間島, 西間島, 露領, 沿海州 各處까지 到處에서 住民을 죽인다, 村落을 불지른다, 財産을 掠奪한다, 부녀자를 옥보인다, 목을 끊는다, 산 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 흑 몸을 두 동가리 세 동가리로 내어 죽인다, 어린아이를 惡刑한다, 婦女子의 생식기를 破壞한다 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참혹한 手段을 써서 공포와 飢餓로 우리 民族을 壓迫하여 人間의 '산 송장' 을 만들려 하는도다.

이상의 사실에 依據하여 우리는 일본 強盜政治, 곧 이민족 정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敵임을 宣言하는 동시에, 우리는 革命 手段으로 우리 生存의 적인 강도 일본을 없애는 일이 곧 우리의 正當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2

內政獨立이나 參政權이나 自治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이나?

너희들이 '東洋 평화', '韓國 獨立 保全' 등을 保證한 盟約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三千里 강토를 집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朝鮮 人民 生命·財産·自由 保護”, “朝鮮 人民 幸福 增進” 등을 거듭 밝힌 선언이

떨어지기 前에 2천 만의 生命이 地獄에 빠졌던 實際를 못 보느냐? 3·1운동 이후에 強盜 日本이 또 우리의 獨立 運動을 完化시키려고 宋秉峻, 閔元植 等 한두 명의 賣國奴를 시키어 이 따위 미친 主張을 외침이니, 이에 附和雷同하는 자는 盲人이 아니면, 간사한 무리가 아니겠느냐?

설혹 강도 일본이 果然 寬大한 度量이 있어 이러한 요구를 許諾한다 하자, 이른바 內政獨立을 찾고 各種 利權을 찾지 못하면 朝鮮 民族은 흔히 보이는 배고픈 鬼神이 될 뿐이 아니냐? 參政權을 獲得한다 하자. 자기 나라의 無產 階級의 血액까지 착취하는 資本主義 強盜國의 植民地 人민이 되어 몇몇 奴隸 代議士의 選出로 어찌 굶어 죽는 禍를 면하겠느냐. 自治를 얻는다 하자. 그 自治가 어떤 종류냐를 떠나서, 日本의 그 강도적 侵掠主義의 看板인 ‘帝國’이란 名稱이 존재한 이상에는, 그 지배하에 있는 조선 人민이 어찌 區區한 自治의 헛된 이름으로써 民族의 생존을 維持하겠느냐.

설혹 강도 일본이 갑자기 佛菩薩이 되어 하루아침에 總督府를 철폐하고 各種 利權을 다 우리에게 돌려주며, 內政과 外交를 모두 우리의 自由에 맡기고 日本의 軍隊와 警察을 한꺼번에 철수시키며, 일본의 移住民을 일시에 소환하고, 다만 헛된 이름의 宗主權만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萬一 過去의 記憶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면, 日本을 宗主國으로 받든다는 것은 ‘恥辱’이란 말을 아는 人類로는 못할지니라.

강도정치 밑에서 文化 運動을 부르짖는 자가 누구이나?

文化는 産業과 文物 발달의 蓄積物을 가리키는 말이니, 經濟 掠奪의 제도 밑에서 生存權이 박탈된 民族은 ‘그 종족의 保全’ 도 의문이거든, 하물며 文化 發展의 可能性이 있으랴. 衰亡한 印度族, 猶太族도 문화가 있다. 하지만, 하나는 金錢의 힘으로 그 祖上의 宗教的 遺業을 계속함이며, 하나는 그 토지의 넓음과 인구의 많음으로 上古에 자유롭게 발달한 문명의 남은 惠澤을 지킴이니, 어디 모기와 등에 같이, 승냥이와 이리같이 사람의 피를 빨다가 골수까지 깨무는 일본의 입에 물린 朝鮮 같은 데서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지켰던 前例가 있더냐? 檢閱·押收, 모든 壓迫 증에 몇몇 신문·잡지를 가지고 ‘文化 運動’ 의 목탁으로 스스로 떠들어대며,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言論이나 主唱하여, 이것을 문화 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 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不幸인가 하노라.

이상의 사유에 의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妥協하려는 자나, 強盜 정치 밑에서 寄生하려는 사상을 가진 자나 다 우리의 敵임을 宣言하노라.

3

強盜 日本을 내쫓자고 主張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論者들이 있으니,
第 1은 外交論이니, 李朝 5百年의 文弱政治가 ‘外交’ 로써 護國의 計策으로 삼았는데, 더

그 末世에 대단히 심하여 甲申 이래 維新黨, 守舊黨의 盛衰가 거의 외국의 도움이 있고 없음으로써 판가름되며, 爲政者의 정책은 오직 갑국을 끌어들이어 을국을 제압함에 不過하였고, 그 믿고 依支하는 習性이 일반 정치 사회에 전염되었다. 그래서 甲午(1894), 甲辰(1904) 兩 戰爭에 일본이 數十萬의 생명과 數億萬의 財産을 희생하여 淸·露(13) 兩國을 물리치고, 조선에 대하여 強盜的 侵掠主義를 貫徹하려 하는데, 우리 조선의 “조국을 사랑한다. 민족을 건지려 한다.” 하는 이들은 한 자루의 칼, 한 방의 탄알을 어리석고 庸劣하며 貪慾스런 官吏나 나라의 원수에게 던지지 못하고, 歎願書나 列國 公館에 던지며, 請願書나 日本 政府에 보내어 國勢의 외롭고 약함을 슬프게 呼訴하여 국가 存亡·民族 死活의 큰 問題를 外國人, 심지어 敵國人的 處分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렸도다. 그래서 ‘乙巳條約’, ‘경술합병’, 곧 ‘朝鮮’ 이란 이름이 생긴 뒤 몇 천 년에 처음 당하던 恥辱에 대한 조선 민족의 분노의 표시가 저우 하르빈의 銃, 鐘路의 칼, 山林儒生의 義兵이 되고 말았도다.

아! 過去 數千年 歷史야말로 용기 있는 자로 보면 침을 빨고 욕할 歷史가 될 뿐이며, 어진 자로 보면 傷心할 역사가 될 뿐이다. 그러고도 나라가 망한 이후 海外로 나가는 某某 志士들의 思想이, 무엇보다도 먼저 外交가 그 第1章 第1條가 되며, 國內 人民의 獨立運動을 선동하는 方法도 “미래의 日美 戰爭, 日露 戰爭 등 機會”가 거의千篇一律의 문장이었고, 최근 3·1運動에 一般 人士의 ‘平和 會議’, ‘國際聯盟’에 대한 過信의 宣傳이 도리어 2천만 민중이 용기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義氣를 없애는 原因이 될 뿐이었도다.

第 2는 準備論이니, 乙巳條約 당시에 列國 公館에 빗발치듯하던 종이쪽지로 넘어가는 國權을 붙잡지 못하며, 丁未年의 헤이그 密使도 獨立 回復의 福音을 안고 오지 못하며, 이에 次次 外交에 대하여 疑問이 생기고 전쟁 아니면 안 되겠다는 判斷이 생겼다. 그러나 軍人도 없고 武器도 없이 무엇으로써 전쟁하겠느냐? 山林儒生들은 春秋大義에 成敗를 생각지 않고 義兵을 募集하여 높은 冠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指揮하는 隊長이 되며, 사냥 포수의 銃 든 무리를 몰아가지고 朝日戰爭의 戰鬪線에 나섰지만, 신문 쪽이나 본 이들—곧 時勢를 짐작한다는 이들은 그리할 勇氣가 나지 않았다. 이에 “오늘 이 時間에 곧 일본과 전쟁한다는 것은 妄發이다. 銃도 장만하고 돈도 장만하고 대포도 장만하고 指揮官이나 兵士까지라도 다 장만한 뒤에야 일본과 전쟁한다.” 함이니, 이것이 이른바 準備論, 곧 독립전쟁을 準備하자 함이다. 외세의 侵入이 더할수록 우리에게 不足한 것이 자꾸 나타나, 그 準備論의 범위가 전쟁 이외까지 擴張되어 教育도 振興해야겠다, 商工業도 發展해야겠다, 기타 무엇 무엇 일체가 모두 준비론의 부분이 되었다.

庚戌 以後 各 志士들이 或 西·北間島의 森林을 더듬으며, 或 시베리아의 찬 바람에 배부르며, 或 남·북경으로 돌아다니며, 或 美洲나 하와이로 돌아가며, 或 京鄉에 出沒하여 十餘年 동안 안팎 여러 곳에서 목이 터질 만치 準備! 準備!를 불렀지만, 그 所得이 몇 개 불완전한 학

실력 없는 단체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들의 誠意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은 그 主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強盜 일본이 政治·經濟 양 방면으로 驅迫을 주어 경제가 날로 困難하고 生産 機關이 全部 박탈되어 입고 먹을 方策도 斷絶되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實業을 發展하며, 教育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軍人을 養成하며, 양성한들 일본 戰鬪力의 백분의 일이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실로 한바탕의 잠꼬대가 될 뿐이로다.

理由에 依據하여, 우리는 ‘外交’, ‘準備’ 등의 헛된 꿈을 버리고 民衆 直接 革命의 手段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4

朝鮮 民族의 生存을 유지하자면, 強盜 日本을 쫓아내어야 할 것이며,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革命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革命에 從事하려면 어느 方面부터 着手 하겠느냐?

舊 時代의 혁명으로 말하면, 人民은 國家의 奴隸가 되고 그 위에 人民을 支配하는 上層, 곧 特殊 勢力이 있어, 이른바 혁명이란 것은 특수 세력의 名稱을 변경함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곧 ‘乙’의 특수 세력으로 ‘甲’의 특수 세력을 변경함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혁명에 대하여 다만 甲·乙 양 세력, 곧 新·舊 양 상전 중에 누가 더 어질고 누가 더 暴惡하며,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가를 보아 그 向背를 정할 뿐이요, 직접의 關係가 없었다. 그리하여

“임금의 목을 베어 百姓을 慰勞한다.”가 革命의 唯一한 취지가 되고,

“한 도시락의 밥과 한 종지의 장으로써 임금의 軍隊를 맞아들인다.”가 혁명사의 유일한 美談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革命으로 말하면 民衆이 곧 민중 자기를 위하여 하는 혁명인 고로 ‘民衆 혁명’이라, ‘직접 혁명’이라 일컬음이며, 민중 직접의 혁명인 고로 그 비등[7]·팽창의 熱度가 숫자상 強弱 비교의 觀念을 타파하며, 그 결과의 成敗가 매양 戰爭學上的 정해진 判斷에서 벗어나서, 돈 없고 근대 없는 민중으로 백만의 근대와 億萬의富力을 가진 帝王도 打倒하며 외국의 盜賊들도 쫓아내니, 그러므로 우리 革命의 第一步는 민중 覺悟의 요구니라.

民衆은 어떻게 覺悟 하느냐? 민중은 神人이나 聖人이나 어떤 英雄 豪傑이 있어 ‘민중을 각오’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각오하는 것도 아니요, “민중아, 각오하자.”, “민중이여, 각오하여라.” 그런 熱烈한 부르짖음의 소리에 의해 각오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모든 不平·不自然·不合理的, 민중 향상의 장애부터 먼저 타파함이 곧 ‘민중을 각오케’ 하는 唯一한 방법이니, 다시 말하자면, 곧 먼저 깨달은 민중이 민중의 全體를 위하여 革命의

가 됨이 민중 각오의 첫째 길이니라.

一般民衆이 배고픔, 추위, 疲困, 苦痛, 妻의 울부짖음, 어린애의 울음, 納稅의 督促, 私債의 재촉, 行動의 不自由, 모든 壓迫에 졸려, 살려니 살 수 없고 죽으려 하여도 죽을 바를 모르는 판에, 만일 그 압박의 주요 원인 되는 強盜政治의 施設者인 강도들을 때려 누이고, 강도의 모든 시설을 破壞하고, 福音이 四海에 전하여 못 민중이 同情의 눈물을 뿌려서, 이에 사람마다 그 '餓死' 이외에 오히려 革命이란 한 길이 남아 있음을 깨달아, 勇氣 있는 자는 그 義憤에 못 이기어, 약한 자는 그 苦痛에 못 견디어, 모두 이 길로 모여들어 繼續적으로 진행하며 普遍的으로 傳染하여 온 나라가 일치하는 大革命이 되면 간사하고 교활하며 暴惡한 강도 일본이 畢竟 쫓겨나가는 날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統治를 打倒하고 우리 민족의 新生命을 개척하자면, 養兵 十萬이 爆彈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여 億千張 신문 잡지가 한 번의 暴動만 못할지니라.

民衆의 暴力的 革命이 발생치 아니하면 그만이지니와, 이미 발생한 이상에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굴리는 돌과 같아서 目的地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停止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經驗으로 말하면 甲申政變은 特殊 勢力이 특수 세력과 싸우던 궁궐 안 한때의 活劇이 될 뿐이며, 庚戌前後의 義兵들은 忠君愛國의 大義로 奮激하여 일어난 讀書階級의 思想이며, 安重根·李在明 등 烈士의 暴力的 行動이 열렬하였지만 그 뒤에 民衆的 力量의 基礎가 없었으며, 3·1운동

만세 소리에 민중의 一致된 義氣가 언뜻 보였지만 또한 폭력적 중심을 가지지 못하였도다. ‘民衆·暴力’ 兩者 중 하나만 빠지면 비록 天地를 뒤흔드는 소리를 내며 壯熱한 舉動이라도 또한 번개같이 수그러지는도다.

朝鮮 안에 強盜 日本이 만들어 낸 革命 原因이 산같이 쌓였다. 언제든지 民衆의 暴力的 革命이 開始되어 “獨立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日本을 쫓아내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 는 口號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目的을 貫徹하고야 말지니, 이는 警察의 칼이나 軍隊의 銃이나 간사하고 교활한 政治家의 手段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革命의 記錄은 自然히 처절하고 씩씩한 記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러서면 그 뒤에는 어두운 함정이요, 나아가면 그 앞에는 밝은 活路이니, 우리 朝鮮 民族은 처절하고 씩씩한 記錄을 그리면서 나아갈 뿐이니라.

이제 暴力—暗殺, 破壞, 暴動—의 目的物을 열거하건대,

- ① 朝鮮 總督 및 各 官公吏
- ② 日本 天皇 및 各 관공리
- ③ 정탐꾼, 賣國奴
- ④ 敵의 一切 施設物

밖에 각 지방의 신사나 富豪가 비록 현저히 革命 運動을 妨害한 罪가 없을지라도, 萬一 言語 또는 행동으로 우리의 運動을 遲延시키고 中傷하는 자는 우리의 暴力으로써 對應할지니라. 일본인 移住民은 일본 강도 정치의 機械가 되어 조선 민족의 生存을 威脅하는 선봉(20)이 되어 있는즉, 또한 우리의 暴力으로 쫓아낼지니라.

5

革命의 길은 破壞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建設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는 다만 形式上에서 보아 區別될 뿐이요, 精神上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다.

우리가 日本 勢力을 破壞하려는 것의 第1은 異民族 統治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조선’이란 그 위에, ‘일본’이란 이민족 그것이 專制하여 있으니, 이민족 전제의 밑에 있는 朝鮮은 固有의 조선이 아니니, 고유의 조선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민족 통치를 파괴함이니라.

第2는 特權 階級을 破壞하자 함이다. 왜? ‘朝鮮民衆’이란 그 위에 總督이니 무엇이니 하는 강도단의 특권계급이 압박하여 있으니, 특권 계급의 압박 밑에 있는 조선민중은 自由로운 조선민중이 아니니, 자유로운 조선민중을 발견하기 위하여 특권 계급을 打破함이니라.

3은 經濟 掠奪制度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약탈제도 밑에 있는 經濟는 민중 자기가 生活하기 위하여 組織한 경제가 아니요, 곧 민중을 잡아먹으려는 強盜의 살을 찌우기 위하여 組織한 경제니, 민중 생활을 발전하기 위하여 경제 약탈제도를 파괴함이니라.

第4는 社會的 不平等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弱者 위에 强者가 있고 천한 자 위에 귀한 자가 있어 모든 불평등을 가진 사회는 서로 掠奪, 서로 박탈, 서로 질투·원수시하는 사회가 되어, 처음에는 小數의 幸福을 위하여 多數의 民衆을 해치다가 마지막에는 또 소수끼리 서로 해치어 민중 전체의 행복이 끝내 숫자상의 차이 되고 말 뿐이니, 민중 전체의 幸福을 增進하기 위하여 사회적 不平等을 파괴함이니라.

第5는 奴隸的 文化思想을 破壞하자 함이다. 왜? 전통적 문화 사상의 宗教, 倫理, 文學, 美術, 風俗, 習慣, 그 어느 무엇이 强者가 만들어 강자를 擁護하던 것이 아니더냐? 강자의 娛樂에 이바지하던 여러 도구가 아니더냐? 一般民衆을 奴隸로 만든 마취제가 아니더냐? 소수제국은 강자가 되고 多數民衆은 오히려 弱者가 되어 不義의 압제에 반항치 못함은 전혀 奴隸的 文化思想의 속박을 받은 까닭이니, 만일 민중적 문화를 提唱하여 그 속박의 쇠사슬을 끊지 아니하면, 일반 민중은 권리 사상이 薄弱하며 自由 向上의 興味가 결핍하여 노예의 운명 속에서 맴돌 뿐이라. 그러므로 민중 문화를 제창하기 위하여 노예적 문화사상을 破壞함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固有의 朝鮮의’, ‘자유로운 조선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

사회의', '민증적 문화의' 조선을 建設하기 위하여 '이민족 통치의', '掠奪 制度의', '사회적 불평등의', '奴隸的 文化 思想의' 現象을 타파함이니라. 그런즉 破壞的 精神이 곧 건설적 주장이라. 나아가면 破壞의 '칼' 이 되고 들어오면 건설의 '깃발' 이 될지니, 파괴할 기백은 없고 건설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만 있다 하면 5百年을 經過하여도 혁명의 꿈은 꾸어 보지도 못할지니라.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요 들이 아닌 줄 알진대, 민증적 파괴 앞에서 반드시 민증적 건설이 있는 줄 알진대, 현재 조선 민증은 오직 민증적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것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 민증이 한 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 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된 '외나무다리 위' 에 선 줄을 알진대,

二千萬 민중은 일치하여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民衆은 우리 革命의 大本營이다.

暴力은 우리 혁명의 唯一한 武器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暗殺·破壞·暴動으로써,

強盜 일본의 統治를 打倒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制度를 改造하여,

人類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收奪하지 못하는 理想的 朝鮮을 건설할지니라.